

예수재(豫修齋)의 교육적 의미

강 민 석

부산대학교

〈요 약〉

죽음을 방편삼아 산자를 가르치는 불교의례가 있다.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하여 천도재를 지내는데, 산자를 위해서도 지낸다. 미리 공덕을 닦아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여 예수재라 한다.

예수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재현하여,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죽음을 만나게 한다. 산 사람을 위하여 명부세계의 시왕을 부르고, 심판과 처벌을 미리 받게 한다. 이를 통해 산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을 일깨운다. 예수재는 구원의 화신들과 만남을 주선한다. 심판과 처벌은 방편일 뿐이다. 인간세계에서 고치지 못한 것을 명부세계에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시왕은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다. 인간들의 잘잘못을 바로잡아 주려는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을 한 신들이다.

예수재는 잘 살기 위한 인간의 몸짓을 구조화, 형식화된 장치로 마련하고, 동시에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을 창조한다. 오늘날까지 그 장치들이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점은 예수재의 교육적 가치를 반영한다. 이것은 예수재가 가지는 인생의 교육적 디자인, 혹은 재현과 재창조의 힘이기도 하다.

핵심주제어: 불교, 예수재, 죽음, 교육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 아닌가 싶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도 ‘나’라는 존재는 계속되는지, 사후세계는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인간이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그때부터일 것이니 죽음에 대한 문제는 뿌리가 깊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그 때부터

지금까지 죽음은 문제시되었고, 이를 원활히 풀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어왔다. 물론 시대, 종교, 국가, 지역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죽음은 말로만 전할 수 없거니와 배울 수도 없다. 그것을 배울 기회도 엄연한 의미에서 단 한번뿐이며, 전적으로 스스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우선 죽음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다음 생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¹⁾

불교는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불교적으로 풀었다. ‘불교적으로 풀었다’는 것은 불교의 방식대로 수용하고, 해석하고, 반응하였다는 것이다. 그럼 불교의 방식은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인간의 일생을 사유(四有)라 하여 생유(生有), 본유(本有), 사유(死有), 중유(中有)를 거쳐 다시 생유로 이어진다고 본다.²⁾ 사유가 죽음의 순간인데, 이후에도 중유라 하여 47일간의 떠돈 뒤 인연을 통해 다시 생유를 얻는다. 즉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중유, 생유, 본유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 중의 일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지은 업에 따라 사생(四生)이라는 여러 형태의 몸을 얻게 된다.³⁾ 『불설삼세인과경(佛說三世因果經)』에 따르면, 지은 업이 원인이 되어 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다.⁴⁾ 결국 인과(因果)에 따라 전세(前世), 현세(現世), 내세(來世)가 모두 이어져 있는 것이다. 현세가 좋지 않다면, 전세의 잘못된 원인에 의해 비롯된 것이고, 현세를 개선한다면, 내세는 그 노력에 의해 좋아지게 될 것이다. 현세에 인간의 몸을 얻었다는 것 또한 전세에 그러한 이유가 분명 있었고, 내세의 사생도 현세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져보면 사유(四有)와 같이 사생(四生)에서도 인간의 몸을 얻어 사는 것이 순환 과정 중의 일면인 것이다. 이처럼 불교의 사유(四有)와 사생(四生)은 죽음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의 순환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육도윤회(六道輪廻)하여 내세와 다른 부류의 삶이 될 수 있음도 보인다.

불교는 인간의 몸을 얻어 인과의 순환과정을 알게 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한다.⁵⁾ 죽음은 이어진 선의 한 점일 뿐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 죽음과 관련된 문제는 자연스레 풀릴 것이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문제를 풀면 순환과정 자체에서 벗어나 부처가 될 수도 있으니 기회 중의 기회이다. 이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그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문제를 풀려면 우선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불교는

1) 공파스님 번역, 『극락세계1- 불설무량수경』(서울: 불광출판사, 1997), 146쪽.

2) 세친(역경위원회 역), 『아비달마구사론』(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 1974), 234-235쪽; 중생이 살다가 죽어 다음의 어떤 생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낸다. 어떤 생이 결정되는 순간(태어남)이 생유, 생이 결정된 후부터 죽을 때까지가 본유, 죽는 순간이 사유, 죽음이후에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49일간의 상태를 중유라 한다.

3) 알로 생기는 단생, 태로 생기는 태생, 습기에서 생기는 습생, 변화하여 생기는 화생으로 구분하며, 인간은 태생에 속한다.(위의 책, 225쪽)

4) 한길로 역주, 『불설삼세인과경』(서울: 불서출판 보련각, 1985), 48쪽.

5) 담무참(역경위원회 역), 『대반열반경 1』(한글대장경)(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 2001), 29쪽.

그 원인으로 괴로움을, 괴로움은 다시 집착이라는 욕심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찾았다.⁶⁾ 괴롭지 않으려면 집착을 없애면 된다. 집착은 결국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없애려면 마음을 고쳐먹어야 한다. ‘마음을 고쳐먹어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면 이 순환의 과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마음 고쳐먹기가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인가.

그리하여 불교는 인간의 인식 변화를 위해 삼학(三學)이라는 수행법을 제시하였다.⁷⁾ 수행자들은 인과에 따라 언제든지 순환이 변화될 수 있으니 수행을 통해 한순간도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이런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떠나버린 망자에게는 먼 이야기일 수 있다. 망자와 다를 바 없이 산 사람들 또한 이 기회가 먼 이야기일 수 있다. 즉 그 마음 모르면 죽었든 살았든 마찬가지이다. 만약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면, 그들이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망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을 위해 불교는 다음, 저 세상의 이야기를 미리 이곳에 의례로써 마련을 하였다.⁸⁾ 크게 사후와 생전을 기준으로 두 가지 의례로 나눌 수 있다. 사후 의례는 이미 죽은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불러 바른 법을 알려준 뒤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의례이고, 생전 의례는 산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보여, 당장 지금부터 잘 살도록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의례이다. 산 사람을 위한 생전 의례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심판을 대비해서 공덕(功德)을 미리[예(預)] 닦는[수(修)] 재(齋)라 하여, 예수재(豫修齋)라 한다.

이 글은 산 사람의 죽음 문제를 불교적으로 풀어놓은 예수재를 다루고자 한다. 비유컨대 아이의 옷에 불이 붙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고 하자.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급히 달려와서는 불을 끄지 않고 잠자코 구경을 하다가, 기껏 한다는 말이 불이 왜 붙었을까, 불이 붙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가던 길을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너나없이 불을 먼저 끈다. 이번에는 이 불을 죽음이라고 해보자. 죽음은 불이 붙은 것처럼 산 사람의 몸에 매달려 있으니 가능한 비유다. 이제 그것을 해결하러 과연 누가 도와주러 올 것인지 살펴보자. 혹시 불구경 후 평을 하던 자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고 가는 이들이 있지는 않을까. 예수재의 참여자는 자신의 옷에 불이 붙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산 사람이다. 이 재는 저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 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자신의 삶이 지금, 이곳의 삶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이어진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도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리고 내세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산 사람의 염려뿐일 수도 있다. 산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의 절박함을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이에 예수재

6) 동국역경원 편, 『방광대장엄경 외』(한글대장경)(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 1978), 306-307쪽.

7) 천진(역경위원회 역), 『십지경론 외』(한글대장경)(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 1997), 133-134쪽.

8) 사후 의례로써 수륙재, 영산재, 49재 등의 천도재(薦度齋)가 있고, 생전 의례로는 산 사람의 천도재인 예수재가 있다. 여기서 재란 중생들이 심신을 정화하고자 일정기간 계를 엄격히 지키고, 믿음을 다지며, 불공을 정성스레 올리는 것을 말한다.(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포교연구실 엮음, 『생전예수재』(서울: 조계종출판사, 2014), 18쪽)

는 자신의 옷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지 않던 죽음과 그 이후를 산 사람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죽음이 한 순간 고통으로 끝이 나는 지점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 선이며, 죽음 이후에도 인과에 따라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알린다. 좋은 일을 했다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일을 했다면 나쁜 곳으로 간다. 하지만 과거의 나쁜 일을 뉘우치고, 지금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한다면, 용서하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후세계인 명부와 그곳의 관리인 시왕을 예수재에 소환한다. 한순간 나쁜 마음으로 나쁜 원인을 짓는다면, 한순간 좋은 마음으로 좋은 원인을 지을 수도 있다. 예수재는 산 자들이 현세에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선업(善業)을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예수재의 이러한 장치와 그 의미를 밝혀낸다면, 전세와 내세로 이어진 현세의 인간 교육은 어떠해야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해일명조의 『예수재』의 경우에는 예수재의 절차에 관해 세세하게 기술하였고, 역사적 고증과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예수재와 오늘날의 예수재가 어떠한 점에서 달라졌는지를 그려내었다. 특히 지금은 사라져버린 절차들의 의미도 고증을 통해 파악하였고, 이를 복원해야만 재의 근본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⁹⁾ 한편, 이범수는 「불교의 예수재와 죽음 교육」에서 ‘예수재의 목적은 죽음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재에 참여한 자와 시왕의 만남, 혹은 죽음과의 만남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상담심리학의 관점에서 풀어내어 현대교육에 접목하고자 시도하였다.¹⁰⁾ 이 밖에도 학위논문 두 편을 소개해보면, 김성민의 경우는 죽음의 다각적인 측면을 통해 죽음준비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이진세의 경우는 불교상례인 예수재와 49재를 죽음 이후의 통합의 안정성을 위한 통과의례로서 살펴보고 있다. 이들도 현대의 죽음교육에 초점을 잡았고, 죽음과 교육의 연관성을 예수재로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¹¹⁾ 이 글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문헌과 현장 연구를 겸하였다. 현장 연구의 경우 생전 의례는 범어사, 통도사의 예수재(2014.09.28.-2014.11.16.)를 참관하였고, 사후 의례는 진관사 수륙재(2014.10.11.-2014.10.12.)를 참관하였다. 참관 기록은 각주에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예수재가 재의 참여자(재자(齋者))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 예수재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예수재의 절차를 살펴본다. 이는 명부세계의 소환과 죽음의 처리를 어떻게 보였는지, 그 장치를 살피기 위해서이다. 3장에서는 장치를 중심으로 교육적 의미를 논한다.

9) 해일명조, 『예수재』(서울: 에세이퍼블리싱, 2011)

10) 이범수, 「불교의 예수재와 죽음 교육」, 『정토학연구』제11집 (서울: 한국정토학회, 2008), 347쪽, 371쪽.

11) 김성민, 『불교의 죽음 준비교육에 대한 연구』(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진세, 『불교상례에 관한 연구: 생전예수재와 49재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II. 예수재의 실제와 분석

1. 예수재의 절차

예수재는 크게 예비 의식과 본 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¹²⁾ 예비 의식은 시련(侍輦), 대령(對靈), 관욕(灌浴), 신중작법(神衆作法), 조전점안(造錢點眼), 금은전이운(金銀錢移運)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본 의식은 의식보고, 도량정화, 사자공양(使者供養), 상단소청(上壇召請) 및 관욕, 중단소청(中壇召請) 및 관욕, 하단소청(下壇召請), 가지공양(加持供養), 봉송(奉送) 및 회향(回向)의 순으로 이뤄진다.¹³⁾ 이 절차를 풀어보자면, ‘산 사람들이 지금부터 예수재를 한다고 알리고[의식보고],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으로 도량을 정화한 후[도량정화] 명부시왕과 관리를 모시기 위해 사자를 불러 초청장을 쥐어 보낸다[사자공양], 상단에 불보살을 증인으로 모시고[상단소청 및 관욕], 명부의 심판관인 시왕과 그 권속을 중단으로 모신다, 그들의 득도(得道)를 기원하며[중단소청 및 관욕], 하단에는 고사판관(庫司判官)을 모셔 모든 일이 원만하게 되도록 기원을 드린다[하단소청], 모두 모셨으니 음식을 대접하고[가지공양], 다 드셨으면 보내드리고, 기쁨을 서로 나눈다[봉송 및 회향]’로 풀 수 있다.¹⁴⁾

이 절에서는 『석문의범(釋門儀範)』¹⁵⁾을 통해 예수재의 절차를 살핀다. 그리고 『시왕경(十王經)』¹⁶⁾, 『수생경(壽生經)』¹⁷⁾을 통해 예수재의 유래 및 등장인물의 역할을 보도록 한다.

12) 해일명조, 앞의 책, 86쪽, 89-101쪽.

13) 예수재는 약식 3편을 포함하여 35편의 절차가 있지만, 재의 흐름에 맞게 간략히 분류한 구미래의 의견을 참고하여 절차를 서술하였다.(구미래,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한 복 짓기』(서울: 아름다운인연, 2014), 129쪽)

14) 상단, 중단, 하단의 역할에 대해 구미래의 논의를 참고하였다.(구미래, 「망혼의 공간이동을 통해 본 불교 천도의례공간의 특성」, 한국종교민속연구회 편, 『종교와 의례공간』(서울: 민속원, 2007), 50쪽, 54쪽, 62-69쪽)

15) 전통적 불교의식의 정립을 위한 의례집이다. 「서문」에서 중하 근기(根機)의 중생들의 가르침을 위한 불교 의례의 중요성을 밝히고, 예수재의 전반적 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다.(안진호, 『석문의범』上(서울: 법륜사, 1982), 1쪽); 이와 함께 2차 자료로 현행 예수재와 조선의 예수재를 비교하여 복원한 자료인 『예수재』와 『보정 생전예수재』를 참고하였다.(해일명조, 앞의 책; 해일명조a, 『보정 생전예수재』(서울: 에세이퍼블리싱, 2011)); 이 자료에 나오는 원전의 번역은 동봉정휴스님이 번역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를 참고하였다.

http://www.vajr.net/dharmadhatu/bang.php?table=study_nalanda&query=view&l=1438&p=1&go=9&from=search&WHERE=subject&keyword=%EC%98%88%EC%88%98%EC%9E%AC&category=#view_first (참고사이트 검색일, 2015.02.09)

16) 장천이 찬술한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을 줄여 『시왕경』이라 한다. 49재와 예수재 등의 경전으로 사용되었다. 본고는 김두재의 번역을 참고하였다.(김두재 옮김, 「불설예수시왕생칠경」, 『시왕경』(서울: 성문, 2006), 3-4쪽)

17) 『수생경(壽生經)』은 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빛을 지는데, 이처럼 빛을 진 이유와 그 빛을 갚는 방법, 갚은 후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번역은 다음 책을 참고하였다.(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포교연구실 엮음, 「수생경(壽生經)」, 앞의 책, 77-83쪽)

1) 의식보고

지금부터 식이 시작됨을 아뢰는 절차이다. 시작에 있어서 향을 불로 사르며 연기를 피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참여자들의 기원을 하늘에 실어 보낸다.¹⁸⁾ 그리고 이 재를 어떠한 까닭으로 한다는 것을 알리기에 이 절차를 「통서인유편(通敍因由篇)」이라 한다. 빔비사라왕의 이야기로 생전예수재의 유래를 알리고, 이러한 난관을 혼자 힘으로 넘기 어려워니 법식(法式)에 맞는 의식으로서 예수재를 올린다고 알린다.¹⁹⁾ 「예수천왕통의(預修薦王通儀)」에서 전하는 빔비사라왕의 이야기에서 그 유래가 소개되고 있다.²⁰⁾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그는 이름 없는 권속(眷屬)들을 챙기지 못한 이유로 명부에 끌려왔다고 한다. 정작 본인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다. 그는 문자에 얽매어, 이름을 통해 서만 주변을 알았으며, 주변과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것과 관계하는 보통의 방식이다. 보통의 인간에게는 이름이 없는 것과 관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도 엄연히 존재함을 명부사자들은 알려준다. 빔비사라왕은 그 점을 알아채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의식보고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다. 이 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야 법식에 맞게 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2) 도량정화

「엄정팔방편(嚴淨八方篇)」이라 하여, 사방팔방을 빈틈없이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으로 도량을 청정(淸淨)하게 하는 의식을 펼친다.²¹⁾ 귀한 손님을 모시기 전에 집의 안팎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 노래로써 맞이하고, 관세음보살의 감로수(甘露水)로 도량을 청정케 하길 기원한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기원이 실린 음성도 볼 수 있는[관기음성(觀其音聲)] 천수천안(千手千眼)의 보살이다.²²⁾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는 천수천안의 자비와 지혜로 중생들을 제도하는 보살로, 영산재(靈山齋)의 「쇄수계(灑水偈)」에서는 대의왕(大醫王)으로, 『천수경』에서는 법성신(法性身)이 되어 지옥에 가면 몸에 닿는 대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끊어지고, 풀리고, 채워지게 하는 보살로 알려져 있다.²³⁾ 이러한 관세음보살에

18) 강재철, 「통과의례에 나타난 제습속의 상징성 고찰」, 『국문학논집』15집 (서울: 단국대학교, 1997), 90-91쪽, 『삼국유사』제3권 흥법 재인용; 『삼국유사』에는 향의 쓰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묵호자를 불러서 향을 태워 기도하게 하니, 왕녀의 병이 곧 나았다’고 한다.(최호 역해, 『흥법』, 『삼국유사』(서울: 홍신문화사), 206-207쪽)

19) 盖聞 如來臨入涅槃 開建生七之大軌 瓶沙即登寶位 預修十王之眞儀 (….) 齋者某人伏爲 現增福壽 當生淨刹之願 式遵科儀 豫修十王 生七之齋.(안진호, 앞의 책, 156쪽)

20) 위의 책, 219-223쪽.

21) 詳夫 聖壇既啓 佛事方陳 將 法水以加持灑 道場而淸淨 蕩諸穢汚 祛衆魔邪.(위의 책, 157쪽)

22) 해일명조a, 앞의 책, 26-27쪽.

23) 이민수 역해, 『법화경』(서울: 홍신문화사, 2011), 399-402쪽; 「쇄수계」는 물로써 청소를 하는 노래(게송)이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을 빌어야 한다. 이를 「갈수계(乞水偈)」라 한다. 관세음보살의 지물인 감로수를 「갈수계」에서 청하고, 이어 「쇄수계」에서 관세음보살을 대의왕으로 칭하며 찬탄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영산재』(강원: 예맥출판사, 2003), 233쪽); 물, 향과 더불어 감로수병의 버드나무 가지

게 엮드려 도량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청한다. 도량의 청정을 위해 보살의 지물인 버드나무와 감로수를 사용한다. 참회의 노래와 말씀을 전하고, 설법을 청한다. 단(壇)을 열고, 세웠다는 것을 진언(眞言)으로 알리고 다음을 진행한다.

3) 사자공양

정화(淨化)를 했으니 성현과 시왕 등을 모셔야 한다. 그들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명부에 직접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산 사람의 몸으로는 명부에 갈 수 없기에 대신 갈 수 있는 이를 구한다.²⁴⁾ 우선 명부의 시왕을 이곳에 초대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준비한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사자를 부른다. 이 의식을 「소청사자편(召請使者篇)」이라 한다. 사자는 연월일시를 맡은 사직사자(四直使者)와 영혼을 바로 데려오는 감재(監齋), 직부사자(直符使者)이다.²⁵⁾ 그들은 신속하고, 정직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명받은 일을 어기는 일이 없다. 다음 「소청사자편」의 사자소(使者疏)와 유치(由致)의 일부에서 그들을 살펴보자.²⁶⁾

총명하고 정직하여 빠르게 소식을 가지고 그곳에 오실 때는 신속하기가 번개와 같고, 가실 때는 빠르기가 번개보다 빠르시고 위풍을 헤아릴 수 없으며 성스러운 힘은 생각기도 어려우며 명받은 기한을 어기는 일이 없다. 오로지 보좌할 뿐 사사로운 바람이 없다.²⁷⁾

명계의 문서를 가지고 인간계의 사신이 되어 오고갈 때 눈 깜짝하는 동안 돌아다니시며 사주의 선악의 많고 적음을 기록하여 명부의 궁전에 올려 명부시왕의 성스러운 밝음이 추호라도 어긋나게 하지 않고 바르고 곧아 샅됨이 없다.²⁸⁾

이러한 사자가 자리할 무대이니 그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준비는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산 사람은 저승의 법을 모르니 어긋날 수밖에 없다. 재자(齋者)들은 이러한 무지함과 이에 따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며, 사자를 자리에 모신다. 차를 올린 후 공양을

등은 정화 의식에 쓰인다.(김순미, 「불교의식에서 불찬류 시가의 기능」, 『동양한문학연구』제19집(부산: 동양한문학회, 2004), 67-68쪽); 무비, 『무비스님의 천수경』(서울: 조계종출판사, 2005), 92-95쪽.

24) 聞 金人垂相 示 中土之化身 玉教流慈憫 南州之劣輩 然 凡情詎通聖意 況 俗體難遭幽關 若欲請 召聖賢 必須假於使者.(안진호, 앞의 책, 160쪽)

25) 이들이 명부사자이자, 저승사자이다. 직부사자는 죽은 자의 지은 죄를 두루마리 종이에 기록하여 시왕에게 전달하고, 감재사자는 창을 들고 죽은 자를 살피거나 감시한다.(배진달, 『세상은 연꽃속에』(서울: 프로네시스, 2006), 140쪽)

26) 聰明正直 捷疾持符 其來也 迅若雷奔 其去也 速如電急 威風莫測 聖力難思 不違有命之期 允副無私之望, (….) 執 冥界之符文 作 人間之捷使 往返斯須廻旋頃刻 記 四洲善惡之多少 奏 十殿冥王之聖聰 秋毫不忒 正直無邪 若不假於威神 誰能達於至聖.(안진호, 앞의 책, 160-161쪽)

27) 헤일명조a, 앞의 책, 42쪽.

28) 위의 책, 44쪽.

대접하는 등의 일상의 모습이 펼쳐진다.²⁹⁾ 공양한 후 초대장을 사자에게 전한다.³⁰⁾ 이제 초대장을 명부세계에 잘 전달하길 바라며 사자를 떠나보내는 의식을 진행한다. 이를 「봉송사자편(奉送使者篇)」이라 한다.³¹⁾ 초대장은 초대 내용이 적힌 청장(請狀)과 공양물의 목록이 적힌 물장(物狀), 두 종류이다.³²⁾

4) 상단소청 및 관육

상단의식으로서 예수재의 증명을 위해 불보살에게 강림할 것을 발원하는 의식, 「소청성위편(召請聖位篇)」이라 한다.³³⁾ 상단을 증명단(證明壇)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재자(齋者)와 시왕 사이에 빛을 갚는 행위에 대해 불보살이 증인(證人)으로 자리한다는 것을 말한다.³⁴⁾ 단을 건립하고 법도에 따라 명부전(冥府錢)과 향, 꽃, 등, 초, 과일 등 진귀한 음식을 마련하였음을 밝히고, 성현들을 청한다. 참석 대상은 삼신을 비롯하여 여러 보살들이다. 그들은 재자(齋者)를 불쌍히 여겨 출정광림(出定光臨)한다.³⁵⁾ 즉 선정(禪定)에서 벗어나 일부러 나오는 것이다. 이는 저승사자가 들고 간 재자(齋者)들의 초청장에 의해서이다. 「소청성위편」의 유치(由致)에서 이를 밝히는데 다음과 같다.³⁶⁾

듣자옵건대 달이 오래도록 허공에서 빛나매 그림자가 천강의 물에 떨어지듯이 능인께서 세간에 나오셔서 지혜를 만 가지 무리의 근기에 나투시웁니다.[나투다: 스스로 나오다] 이러하기에 강물이 깨끗해야 가을달이 비치고 신심을 내어야 모든 부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여래께서는 참되고 실다운 지혜로 모든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간절히 예를 올리는 원을 아시어 머리를 조아려 귀명하는 예로써 청하웁니다.³⁷⁾

29) 헤일명조, 「불교 의식 구조의 의미해석에 대한 재론」, 『공연문화연구』제24집 (제천: 한국공연문화학회, 2012), 433쪽, 444쪽.

30) 범어사의 사례의 경우에 법주(法主)가 직접 태우는 장면을 보였다. 보내는 방법은 법당의 바깥쪽에 소(疏)를 들고 나가 불로 태우는 것이다. 태움으로써 명부로 보낸다. 이는 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중생을 일깨우는 한 방법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법주의 진행에 따라 봉송사자 시 재자(齋者)들이 모두 사자가 갈 방향으로 몸을 돌리면서 제대로 초대장을 전달해주길 기원하였다.

31) 文牒幸謝於賚持 雲程 願希於馳赴.(안진호, 앞의 책, 165쪽)

32) 초대장은 청장과 물장으로 구성된다. 청장은 산 사람의 수명과 복을 비는 내용이고, 물장은 공양을 준 비하였으니 속히 내려오길 바라는 내용이다.(헤일명조, 앞의 책, 318쪽)

33) 右伏以 佛恩周庇 不違有感之心 法力難思 能濟無邊之衆 伏乞覺天金相 慈光普照於凡情 空界眞靈 威德感通於此地 今修淨供 望賜哀憐 出定光臨 和南謹疎 仰惟 大覺證明 謹疎.(안진호, 앞의 책, 169쪽)

34) 불교 의례의 형식 중에 공통적인 형식이 있다면 공양을 베푸는 것과 증인을 초대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앞서 구미래가 지적한 것처럼 상단은 증명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증명을 위해 증인을 세우는 불교의식으로 2014년 범어사에서 열린 팔관회(八關會)의 수계대법회가 있었다.(2014 팔관회 리플릿 참조)

35) 헤일명조a, 앞의 책, 63쪽.

36) 蓋聞 月照長空 影落千江之水 能仁出世 智投萬彙之機 是以 江水淨而秋月臨 信心生而諸佛降 如來眞實智 悲愍諸衆生 願知虔誠禮 垂慈作證明 一心稽首 歸命禮請.(안진호, 앞의 책, 170쪽)

37) 헤일명조a, 앞의 책, 64쪽.

사자를 통해 보낸 초청장은 불보살의 강림을 이루어 냈다. 이미 그 근본이 오염되었기에 삼신을 모신 후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청정케 하고자 한다.

뒤이어 지장보살을 초청한다. 지장보살은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발원(發願)하여 지옥에 떨어진 망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그들을 구제하는 보살이다.³⁸⁾ 깨달음을 얻어 바로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접고, 우선 모든 중생을 구제한 후 성불할 것을 서원한다. 지장보살의 등장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온전한 자력 구제는 힘들다는 점이다.³⁹⁾ 지장보살은 중생들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에 “그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다.⁴⁰⁾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선공양(追善供養)과 생전예수의 근거를 말하였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임종하면, 그의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칠분의 일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⁴¹⁾

죽은 이를 위해 공덕을 드리면 칠분의 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산 사람의 공덕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닦으면 공덕을 온전히 얻으니 미리 닦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⁴²⁾ 지장보살은 중생들이 업보로 받는 과보와 지옥의 이름을 미리 말해주어 죄 짓지 않도록 해주었고, 그렇게 구제한 중생이 부처님의 눈으로도 셀 수 없이 많다고 하였다.⁴³⁾

다음 「봉영부욕편(奉迎赴浴篇)」이라 하여 상단의 관욕의식이다.⁴⁴⁾ 이미 깨달음을 얻은 이에게는 새로이 정화될 필요가 없다. 성현에게는 죄가 없고, 때도 없으므로 관욕이 필요하지 않다.⁴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욕을 하는 이유는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이

38) 신춘열 옮김, 『업설 지장경』(광주: 광복사, 2009), 25-28쪽.

39)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의 등장은 온전한 자력 구제는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리며, 두 보살은 보조적 역할로써 예수재의 장치를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구미래, 「사십구재의 의례기반과 지장신앙의 특성」, 『정토학연구』 제15집(서울: 한국정토학회, 2011), 107쪽)

40) 신춘열 옮김, 앞의 책, 101쪽.

41) 위의 책, 106-107쪽.

42) 『지장경』에서 살핀 것처럼 『시왕경』에서도 예수재의 근거를 살필 수 있다.(김두재 옮김, 앞의 책, 19-20쪽, 61쪽); 『수생경(壽生經)』도 그러한데, 범대로 만든 지전과 경전만 읽으면 업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하여, 중생을 일깨우고자 한다. 이는 중생교화의 방편으로 보인다.(구미래, 앞의 책, 74쪽)

43) 신춘열 옮김, 앞의 책, 24쪽, 72-76쪽.

44) 현행 예수재에서는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해일명조는 참여대중에게 성현이 현장에 왔음을 눈에 보도록 알리는 교화의 방편이자 역할로써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해일명조, 앞의 책, 323-325쪽)

45) 해일명조a, 앞의 책, 68-70쪽.

다.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자 성현들이 냇가로 임하셨고, 곧 관육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의식을 치른다. 범부들을 위하여 때 없는 몸을 씻으시는 성현들을 찬탄한다. 관육의식을 마치고 상단의 자리로 모시기 위한 의식을 진행한다. 위패(位牌)를 상단에 안치한 다음 참석 대중이 상단에 모셔진 불보살에게 예를 올린다.

5) 중단소청 및 관육

신중을 모시는 중단의식의 시작이다.⁴⁶⁾ 「소청명부편(召請冥府篇)」으로 시작한다. 유치에서 명부의 대왕과 관리들을 부르는 이유를 밝힌다. 다음은 「소청명부편」의 제구(第九) 도시대왕(都市大王)을 부르는 유치의 일부이다.⁴⁷⁾

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합니다. 자비지혜 다 갖추신 거룩하신 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들은 제도하지 못하고 이미 지은 업장들은 구원하지 못하고 모든 중생 남김없이 제도하지 못하시니 저승세계 관장하는 우리 명왕 도시대왕 크나 크신 본원력을 만약 입지 못한다면 육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고해 중생들이 영겁토록 맹화지옥 벗어나지 못한 채로 하룻동안 일반번씩 죽었다가 살아나리 손가락을 튕길 사이 지옥불을 꺼버리는 아홉째로 도시대왕 그에 따른 권속이여 오직 삼보력을 이어 비밀어에 의지하여 오늘 밤 지금 법회에 내려오셔서 이 공양을 받으소서⁴⁸⁾

상단 관육에서 부처님이 출정광림하였고, 때 없는 몸을 일부러 씻으셨음을 밝혔다. 이곳에서는 부처님이 인연 없는 중생들은 제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단은 증명단이며 증인의 역할을 한다. 구도(求道)의 본보기였던 부처님을 모셨지만, 자력구제의 힘든 점을 간파하여 지장보살도 모셨다.⁴⁹⁾ 이제 지장보살뿐만 아니라 심판의 당사자인 시왕들에게 주요 권한이 옮겨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지장보살은 거불로서 재차 등장하는데, 이는 지장보살이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의 역할을 하여 명부시왕과 그 권속을 안내하기 위함이다.⁵⁰⁾ 지장보살과 함께 도명존자(道明尊者), 무독귀왕(無毒鬼王)을 부른 후 명부를 관리하는 시왕을 비롯하여 그에 따른 권속 모두를 불러 모신다.⁵¹⁾

46) 예수재의 목적이 중단공양에 있기에 이 절차는 절차 중에서 가장 길다. 이처럼 절차를 길게 진행하거나, 부처님을 크게 만들거나, 단과 음식을 높게 만들거나 따위의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는 행위는 중생들의 교화방법으로 중요한 행위임을 알려준다.(정명희, 「이동하는 불화: 조선 후기 불화의 의례적 기능」, 『미술사와 시각문화』10집 (서울: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1), 106쪽); 해일명조, 앞의 책, 87-88쪽.

47) 一心奉請 佛不能救 衆生定業 若不蒙我 冥王本願 三界衆生 永劫不出 猛火地獄 一日一夜 彈指滅火 第九都市大王 並從眷屬 唯願承 三寶力 仗 秘密語.(안진호, 앞의 책, 183쪽)

48) 해일명조a, 앞의 책, 97쪽.

49) 석가모니불은 자력으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은 타력으로 구제한다는 것을 상징한다.(구미래, 앞의 글, 107쪽)

50) 천도제에서 인로왕보살은 영가를 불러 모으는 길잡이 보살이다.(허미경, 「천도제와 씻김굿에 관한 비교연구」, 『동양학연구』제3집 (익산: 원광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99쪽); 예수재에서는 지장보살이 산자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51) 무독귀왕, 도명존자는 지장보살의 협시로서 무독귀왕은 사람들의 독한 마음을 없애주는 귀왕이다.(신춘

다음은 중단 관육의식이다. 명부세계를 관장(管掌)하던 시왕의 노고(勞苦)를 풀고자 관육을 청하는 의식을 진행한다.⁵²⁾ 상단 관육의식과 같이 보이지 않던 존재를 보이게 함으로써 구현의 과정을 보여주는 의식이다. 삼업(三業)을 맑히는 데는 마음 맑히는 것이 우선임을 알리며 이를 위해서 부처님의 가피(加被)를 받아 깨끗한 물로 관육하길 권한다.⁵³⁾ 관육 후 욕실에서 상단의 불보살에게 예를 갖추길 기원한다. 이를 「참례성중편(參禮聖衆篇)」이라 하는데, 이는 “중단 명부성현은 말 그대로 성현의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도 불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성불을 이루려는 중생이기 때문에 상단을 향해 예를 올려야”한다.⁵⁴⁾ 시왕과 그 권속들이 중단에 자리잡기 전에 상단의 불보살에게 예를 올린다. 상단에 참례 후 중단에 자리를 모신다.

6) 하단소청

「소청고사판관편(召請庫司判官篇)」으로 하단의식이 시작된다. 예수재에서는 하단, 또한 증명단의 구실을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고사판관은 명부성현이라기보다는 명부관리이기에 하단에 모신다. 명부관리를 청하는 이유는 전생 빚을 명부세계에 갚았음을 증명받기 위해서다.”⁵⁵⁾ 그들은 명부의 제물과 인간의 수명을 관리한다.⁵⁶⁾ 『수생경(壽生經)』에 따르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 명부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명부의 법대로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빔비사라왕이 전한 이야기 속의 거대한 흰 산의 일부처럼 헛된 것이 될 터이니,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에 따라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을 우선 제대로 알고, 저승에 쓰일 수 있는 돈으로 준비해야 한다.⁵⁷⁾ 명부세계의 창고로 보낼 돈을 준비하고, 그 돈을 보관할 관리를 부른다.

다음으로 중단의 참례성중과 동일하게 하단의 관리들 또한 상·중단의 불보살과 명부 시왕과 그 권속들에게 예를 올린다. 예를 마치고 난 다음 하단 명부 관리를 자리로 모신다. 직접 명부에 올라가지 못하는 재자(齋者)들의 부름에 응해주시는 것도 감지덕지하지만, 혹 불러서 잘못 자리하게 했다면 크나큰 잘못임을 밝힌다. 이 절차를 「제위진백편(諸位陳白篇)」이라 한다. 예수재가 열린 후에 생겼던 절차상의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라고, 명부의 왕과 관리들의 뛰어난 능력으로 스스로 대처할 것을 부탁한다.⁵⁸⁾

열 읍김, 앞의 책, 34쪽)

52) 天行地步諸神衆 來詣蘭湯舉錦幃.(안진호, 앞의 책, 193쪽)

53) 詳夫 淨 三業者 無越乎澄心 潔 萬物者 莫過於清水 是以 謹嚴浴室 特備香湯 希通力以昭彰 愍精誠而納浴.(같은 책)

54) 해일명조a, 앞의 책, 120쪽.

55) 위의 책, 134쪽.

56) 上奉冥界之錢財 下昭人間之壽生 出納取與 不遺毫髮 由是備諸珍饌 嚴列冥錢 至心懇意 以伸供養 伏願各運懽忻之意 咸赴法筵之壇 仰表一心 先陳三請.(안진호, 앞의 책, 199쪽)

57) 위의 책, 223-229쪽.

58) 乃緣世俗之相傳 排列寶位之坐次 實慮 尊卑錯序 各位差殊 盖爲凡流 不知高下 伏望摠監 次第就

7) 가지공양

상단, 중단, 하단에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재자(齋者)가 마련한 공양을 성현과 신중들이 받으려면 일종의 변화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언(眞言), 즉 부처님의 힘을 비는 주문인데, 성현과 신중들이 드실 수 있도록 공양물의 질과 양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다. 사다라니진언(四陀羅尼眞言)으로 변화를 시키고, 그래도 부족한 점은 보결진언(補闕眞言)을 통해 보충한다. 이렇게 부처님의 힘을 비는 것을 가지(加持)라 하고, 빌린 힘으로 성현과 신중들이 드실 수 있는 공양으로 변화시켜 올린다고 하여 이 절차를 「가지변공편(加持變供篇)」이라 한다.⁵⁹⁾

축원을 할 때 시왕단에 있던 금은전을 이동시켜 고사단에 놓는다. 그 후 화청(회심곡)을 한다. 전생 빚을 갚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참석한 하단 명부 관리들에게도 공양을 올린다. 함합소(緘合疏)를 읽은 뒤 절반으로 찢어 재자(齋者)에 건네며 축원한다.⁶⁰⁾ 금은전을 옮길 권속들의 말과 낙타를 모신 마구단에도 공양을 올린다.

8) 봉송 및 회향

봉송은 지금까지 의식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해주신 불보살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재자(齋者)들의 수명과 복이 늘어나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중·하단의 신중과 관리들 또한 성불하길 재차 기원하며, 재에 쓰인 일체의 재물을 태워 명부세계로 보낸다. 재의 원만한 진행을 불보살에게 감사드리고, 더욱 정진할 것을 발원(發願)하며 회향의식을 끝으로 마친다.

이와 더불어 참관한 예수재에서는 망자의 재도 함께 진행되었다. 본 의식 전에 예비 의식으로 시련을 통해 영가(靈駕)를 모시고, 관육 후 재(齋)에 입장시켰다. 산 사람과 함께 준비를 시키고, 재를 진행하였다. 그들 또한 산 사람과 같이 기원을 드리게 하였다.

귀한 손님을 모시려면, 미리 집 청소를 하고, 음식을 장만해야 한다. 그리고 초청장을 보낼 사람을 부르고, 그에게 부탁하여 그 분을 부른다. 도착하면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음식을 대접해서 잘 보내드리는 것이 예수재의 절차이다. 즉 의례인 동시에 인간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다. 이렇듯 불교의식에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일상사와

座 各賜寬容 矜恤誠虔 欣受供養 無任懇禱 激切之至.(위의 책, 201쪽); 일체 모인 성중들이 각기 제 자리에 찾아주시길 바라고 있다. 그것을 재자(齋者)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말씀을 만드시 드려야만 잘못이 되지 않는다.

59) 梅檀再蘇 蘋藻交陳 欲成供養之周圓 須仗加持之變化.(위의 책, 202쪽); 부처가 자비와 지혜를 중생에게 베풀고 중생이 그것을 받아 지너 부처와 주생이 서로 합치하는 것을 가지(加持)라 한다.(곽철환 편저, 『시공 불교사전』(서울: (주)시공사, 2004), 15쪽)

60) 緘合疏讀后折半割授以證后考也.(위의 책, 210쪽); 나중에 재자(齋者)가 죽어 명부에 갔을 때 증서(證書)로 사용된다.(혜일명조a, 앞의 책, 167쪽)

연관 지어 살펴본다면 의미해석의 편이와 더불어 의례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⁶¹⁾ 일상을 가져왔기에 그 구조의 유사성으로 의례해석이 용이하고, 다시 일상 속으로 유사확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 죽음의 형상과 명부의 재현

앞서 절차를 통해 살폈듯이 예수재의 특징은 상단, 중단, 하단의 영역을 구분하듯이 특정 공간이나 존재를 인정한다. 그리고 기원과 다짐을 밖으로 선언하거나, 빛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갱신(更新)이 일어나게 한다. 이 절은 이러한 갱신의 장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자기 빛과 죄를 공덕으로 미리 갚을 것이니 용서하라’는 기원이 가능해지려면 우선 시왕과 불보살을 무시(無視)에서 유시(有視)로 인정해야만 논의가 진행된다. 그래야 불보살을 증인으로 모시고, 시왕에게 심판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참여자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 자의 눈에 죽은 자가 보여야 비로소 산 자는 그것을 믿는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일상적인 장면에 의해서 이뤄진다.

예비 의식인 시련과 관육에 의해서 무시의 존재를 유시의 존재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 귀한 분을 모실 가마를 준비한 뒤 그것을 직접 일주문 밖에서 실어온다. 그리고 작법(作法)과 범패(梵唄)로 찬하고 부르며, 탈 것인 가마를 이용해 인로왕보살을 모신다. 더불어 영가를 불러들이고, 산 자도 가마의 끈을 잡고 함께 이동을 한다. 씻은 후에야 재에 입장할 수 있기에 모셔온 영가를 관육소(灌浴所)에서 정화의식을 치르도록 한다. 이는 상·중단의 관육의식처럼 보이지 않던 존재를 구현하여 그것이 실제 존재하도록 느끼게끔 만든다. 오늘날의 예수재는 죽은 자의 천도재(薦度齋)도 겸하기에, 그들의 이름을 종이웃 또는 종이 위패에 적어 붙여둔다. 산 사람 또한 죽은 자와 같이 이름을 종이에 적어 번처럼 걸어 둔다. 이렇게 이름을 걸어버림으로써 영가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이제 산 사람은 명부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비명횡사 등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가들을 모시고, 산 사람도 그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무대에 입장한다.

무대 상단에는 불보살의 번(幡)과 각종 진언, 금은전 등이 걸려 있다. 시왕도는 중단 쪽에 걸어두고, 고사관과 사자단은 하단에 붙여 둔다. 명부 세계를 이렇게 꾸민 뒤 이제 실제로 시왕과 증인을 모셔야 한다. 이에 초정장을 전달할 저승사자를 등장시킨다. 일상과 유리되지 않은 초대형식을 갖추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 다음 불보살을 증인으로 모시고, 시왕들이 오면 차례차례 인사를 드린다. 자리에 모신 시왕들께 부탁과 동시에 구도

61) 헤일명조는 일상사(결혼을 위해 어른을 만나는 자리)의 예를 통해 재의 진행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중·하근기의 중생을 위한 의식을 살피기 위해 그들의 관점으로 보겠다는 것은 예수재의 이해에 좋은 길잡이가 된다.(헤일명조, 앞의 글, 429-430쪽)

(求道)를 희망한다. 시왕들께 부처의 불능을 통한 권위를 상승 시켜드리고 공양을 드린다. 봉송길에는 예수재함을 각자의 머리에 이고, 이동하여 봉송터에 쌓아 둔 다음 불에 태워 보낸다.⁶²⁾

이제 필요한 것은 ‘이곳이 죽어서 가는 명부(冥府)이다’라는 것을 재 참여자가 느끼게 만드는 것인데, 단순히 장치만 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두려움을 느끼고, 업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증거가 있으면 이에 반응하여 변화한다. 증거에 의해 죄인들이 실토할 수 있는 명부세계를 마련했으니, 이제 어떠한 증거로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보자.

그 증거는 준비된 장치이자 사물로써, 그리고 구체적 행동과 이야기를 이용한 사건 서술로써 드러난다. 즉,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일상행동의 유사성 이외에도 범패송은 명부를 소환하기 위해 소리를 하거나 작성한 문서를 읽는다. 구체적 장면이 행동으로 진행되는 동안 그에 대해 이야기로 설명하거나 꾸민다. 가령, 시왕도(十王圖)를 걸어두었지만 시왕이 오셨다는 의식(儀式)을 해야 실제로 시왕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재의 의식보고나 유치 등의 이야기는 실제의 일을 재현하는 기능을 한다.

예수재가 마련한 장치의 이야기는 이렇다. ㉠누구나 죽는다, ㉡몸은 죽었으나 영혼이 있다, ㉢죄를 지었다면 영혼이 되어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한다, ㉣받기 전에 죄에 응당한 벌이 무엇인지, 심판을 받으러 명부에 가야한다, 그 곳에는 심판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을 만나려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에게 빛을 잘 갚으면 벌이 감해지거나 없어진다, ㉥저승에서 쓰이는 돈이 있고, 조심히 옮겨야 한다, ㉦공덕이 쌓이면 다음 생은 좋은 곳에 태어난다. ㉧부터 ㉨까지의 절차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면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우선 ㉠은 18가지의 액운으로 망자가 당한 죽음의 유형을 보인다. 그리하여 산 사람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죽음의 보편성을 확보한다.⁶³⁾ 이는 『수생경(壽生經)』에서 살필 수 있다.

갑자기 닥치는 아래 열여덟 가지 액운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첫째는, 먼 길을 떠났을 때 산비탈과 물가에서 악인에게 멸시당하고, 희롱당하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둘째는, 먼 길을 떠났다가 비,

62) 예수재함에는 금은전, 『수생경(壽生經)』, 합합소, 『금강경』, 칠마(七馬), 지전(紙錢)으로 된 노자돈 등이 담겨져 있다. 실제 무게는 가볍지만, 재자의 빛이자 죄의 무게로 생각한다면 태산과 같이 무거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재함을 머리에 이고 간다.

63) 죽음의 보편성 논의는 홍태한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예수재의 죽음의 형상처럼 수록재의 보편적 죽음의 형상 또한 다음과 같다. “끓어 죽음, 얼어 죽음, 병으로 죽음, 전쟁에서의 죽음, 창이나 칼에 찔려 죽음, 목매달아 죽음, 바다나 물, 우물에 빠져 죽음, 짐승에 물려 죽음, 수레에 깔려 죽음, 말에서 떨어져 죽음, (···)” 등의 죽음 유형을 언급하며 죽은 자를 불러 모은다.(홍태한, 「진관사 수록재 <하단>에 보이는 죽음 형상의 보편성」, 진관사수록재보존회 편, 『진관사 수록재의 민속적 의미』(서울: 민속원, 2012), 123쪽, 139-140쪽)

바람과 우박을 만나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셋째는, 강물을 건널 때 물에 빠져 죽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넷째는, 담이 쓰러지고 집이 무너지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다섯째는, 불에 타 죽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여섯째는, 죄를 보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일곱째는, 앓고 병드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여덟째는, 문둥병에 걸리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아홉째는, 목구멍이 막히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열 번째는,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 다치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열한 번째는, 뱀들 가는 수레에 치어 죽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열두 번째는, 상처가 생겨 전염균으로 죽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열세 번째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열네 번째는, 비명횡사하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열다섯 번째는, 줄지에 중풍에 걸리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열여섯 번째는, 시절마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을 면할 것이다. 열일곱 번째는, 우물에 뛰어 들어 스스로 목을 매어 죽는 액운을 면할 것이다. 열여덟 번째는, 관가의 액과 구설시비의 액운을 면할 것이다.⁶⁴⁾

18가지의 액운에 의한 죽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안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며 빚을 갚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알린다. 즉 유형별 죽음을 통해 보편적 죽음의 형상을 산 사람에게 알린다.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예수재는 그것을 알려 결국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잘 살도록 돕는다. 천도재가 ‘죽은 자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전제아래 보편적 죽음의 형상으로 객관적 사유체계를 마련하였듯이⁶⁵⁾ 예수재 또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 살아서 행한 부끄러운 짓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경계를 준다.⁶⁶⁾ 산 사람이 그런 형상 혹은 사건으로 인해 결국 죽은 사람과의 동질성을 획득하게 된다. 죽음 형상이 동일하다는 것, 이것이 죽음 형상 동질성의 의미이다. 죽음의 형상이 여러 가지지만 결국 주변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린다. 그리고 결국 죽음의 보편성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⁶⁷⁾ 그런 장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것이 지속됨을 이야기한다.

㉠은 죽었으나 끝이 아님을 알린다. 예수재에서는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이 의식에서 미리 모셔온다. 예비 의식에서 시련, 대령, 관육의식은 이들을 도량으로 모셔오는 장치인데, 이는 산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 존재를 보이고자 함이다. ㉠에서는 중단의 시왕도와 하단의 탕화(幀畵)를 통해 드러난다. 시왕도를 살펴보면, 제일(第一) 진광대왕(泰廣大王)도에는 망자를 밧줄로 묶고 끌고 가는 장면, 제이(第二) 초강대왕(初江大王)도에는 죄인 앞에 판관이 장부에 기록된 죄목을 읽고 있는 장면, 제삼(第三) 송제대왕(宋帝大王)도에는 죄인을 묶고 혀를 빼내는 장면, 제사(第四) 오관대왕(五官大王)도에는 업칭(業秤)이라고 하는 저울로 죄의 무게를 다는 장면, 제오(第五) 염라대왕(閻羅大

64)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포교연구실 엮음, 앞의 책, 78-81쪽.

65) 객관적 사유체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로서 이를 위해 죽음 형상의 동질성을 확보한다. 홍태환에 따르면 죽음 형상 동질성의 의미는 죽음은 갑작스러운 것이며, 삶은 순탄치 않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린다.(홍태환, 앞의 글, 139쪽)

66) 국립문화재연구소, 『불교의례와 음식』(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2007), 19쪽.

67) 홍태환, 앞의 글, 139쪽.

王)도에는 망자의 전생을 비추는 업경대(業鏡臺)를 통해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는 장면, 제육(第六) 변성대왕(變成大王)도에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 담는 장면, 제칠(第七) 태산대왕(泰山大王)도에는 죄인을 묶어 톱으로 썰는 장면, 제팔 평등대왕(平等大王)도에는 바윗덩어리에 압사시키는 장면, 제구(第九) 도시대왕(都市大王)도에는 한빙지옥의 장면, 제십(第十)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도에는 심판을 받은 후 육도윤회의 수레바퀴를 타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⁶⁸⁾ 하단의 탕화 또한 전쟁으로 인한 죽음 등 비일상적인 죽음을 맞아 저승으로 떠나는 장면과 함께 죄값을 받는 장면이 하부에 묘사되어 제시된다.⁶⁹⁾ ㉔은 고통을 주는 이들을 만나려면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사자를 모시고, 초청장을 보낸다. ㉕과 ㉖은 조전점안과 고사관의 금은전이운에 의해서 실행된다. 그리고 봉송 때 그 돈을 머리에 조심히 이고 간다. ㉗은 앞의 절차에 따라 장치를 가동하였기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처럼 증거에 의해 진실이 드러나게 하거나 죄인의 죄를 자백하게 하고,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킨다. 자기의 죄에 대해 실토하고, 인정함과 동시에 죄에 대한 인식과 행위가 일치하게 된다. 즉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됨을 알고,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정 뒤에 갱신이 따라온다. 갱신을 위한 증거는 그들의 죄와 죄의식의 일치를 돕는 조건이 된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음 이야기가 이어진다. 증거와 같은 특정의 방식을 마련하여 의도적으로 추가적인 변화와 참여를 꾀하는 것이 예수재의 갱신 원리이다. 즉 ‘동의하면 동의된 후의 약속된 결과가 따라 온다’는 것, 그것이 예수재의 유기적 서사(敍事)가 작동할 연기(緣起)의 원리인 것이다.

다음은 죽은 이후의 세계인 명부와 시왕을 살펴보자.

보편적인 죽음의 형상을 알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재는 명부를 재현하여 시왕을 산 사람과 직접 만나게 한다. 인연이 없으면 부처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시왕은 부처님도 못하는 그 구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시왕도 부처의 화신(化身)이니 결국 인연이 없어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68) 통도사의 경우에 시왕도를 볼 수 있었는데, 각 시왕마다 한 폭의 그림에 그려져 있고, 모두 열 폭의 그림이 상단의 좌측 편에 걸려 하단과 중복되게 위치하고 있었다. 게다가 재가 열리고 있는 바로 옆 건물에 명부전(冥府殿)이라 공포스러움을 제대로 구현한 시왕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시왕도에 대한 설명은 통도사 시왕도에 대해 설명한 유마라·김승희의 책을 참고하였다.(유마라·김승희, 『불교회하』(서울: 솔출판사, 2004), 253-259쪽)

69) 상단, 중단, 하단에 맞는 탕화(幀畵)들이 보통 붙여져 있거나 걸려 있다. 실제 예수재에서는 하단을 영가단(靈駕壇)과 동일 취급하여 보지 못했지만, 수록재에서는 하단에 감로탕(甘露幀)을 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감로탕은 불교의 회화형식으로 그려진 하단 그림이다. 김현선이 조사한 감로탕의 하단부 장면을 살펴보면, ‘자기 죽을 날도 모르면서 남의 운명을 점치는 판수내외, 죄인을 다스리는 장면, 자결하는 장면, 저자거리의 장면,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독사에 물려죽고, 바위에 깔려죽는 장면’ 등을 볼 수 있다.(김현선, 「〈감로탕〉 그림의 구조와 시대적 의미-고령산 보광사 〈감로탕(1898)〉를 예증삼아」, 한국종교민속연구회 편, 『종교와 그림』(서울: 민속원, 2008), 132-143쪽)

것이다.⁷⁰⁾ 이것은 산 사람만이 가진 시왕에 대한 특권이다. 명부세계를 직접 본다는 것만으로도 특권이지만 왜 시왕은 이러한 특권을 가져야 할까. 앞서 보이지 않던 존재가 등장해야만 예수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존재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야기, 구체적 행동, 일상행동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이를 보지 못한다.⁷¹⁾ 「소청명부편」의 유치에서는 어리석은 죄인과 이들을 대하는 시왕을 소개한다.⁷²⁾ 살아서도 깨닫지 못했던 자는 죽어서는 더욱 깨닫기가 힘들다. 죄인들은 부모 살을 뜯어 먹으면서도 그 잘못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등의 어리석음을 보인다.⁷³⁾ 죽어서 간 명부에서도 죄를 부정하는 행태는 여전하다. 이러한 자들에게 시왕들의 주요한 대응은 주로 장부[선안]에 생전의 일을 꼼꼼하게 기록한 증거를 보여주거나 죄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업칭], 생전의 못된 일을 생생한 화면으로 보이는 거울[업경대] 등으로 죄인들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확실한 증거를 대는 것이다.⁷⁴⁾

이처럼 시왕은 사상(四相)을 가진 범부중생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사심(四心)을 발휘하여 불보살과 다름없이 행하기도 한다.⁷⁵⁾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가는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서원은 성스러운 부처가 되기 위해 온누리를 교화하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있다.⁷⁶⁾ 죄인에 대한 심판과 처벌의 특권은 죄를 부정하는 자들을 긍정으로 돌리기 위해서 발휘된다. 즉 시왕은 중생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과 처벌을 통해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낸다.⁷⁷⁾

70) 진광대왕은 부동명왕, 초강대왕은 석가모니 부처님, 송제대왕은 문수보살, 오관대왕은 보현보살, 염라대왕은 지장보살, 범성대왕은 미륵보살, 태산대왕은 약사여래, 평등대왕은 관세음보살, 도시대왕은 대세지보살, 오도전륜대왕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다. 이들은 무서운 심판관인 동시에 자애로운 모습으로 죄인들을 가르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포교연구실 엮음, 앞의 책, 53-62쪽)

71) 우룡스님, 『영가천도』(서울: 효림, 2013), 33쪽.

72) 一心奉請 住不思儀 大乘菩薩 首願攝化 拯苦衆生 權現示跡 大叫喚獄 植本慈心 第二初江大王 (….) 一心奉請 於未來世 當作作佛 號 普現王 如來 十號具足 國土嚴淨 百福莊嚴 國名華嚴 菩薩充滿 第五閻羅大王 (….) 一心奉請 若無地獄 無一衆生 得成正覺 興悲降尊 勸成佛道 第十五道轉輪大王.(안진호, 앞의 책, 181, 182, 183쪽)

73) 罪人所喫 平生之肉 若非父母 不入於口 赤血淋漓 斗之如海 盡被罪則 何劫有限 斷分出獄.(같은 책)

74) 空中懸秤 稱量業因 第四五官大王 (….) 收錄善案 第七泰山大王 (….) (第八平等大王) (….) 明鏡當臺 照膽寒 物逃妍媸也應難.(같은 책)

75) 사상은 나라는 상에 집착하는 아상(我相),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오는 행동과 생각인 인상(人相), 괴로운 것을 싫어하고 즐거운 것을 탐내는 동물적인 행동이나 상념의 집착인 중생상(衆生相), 선천적으로 길든 짧은 간에 일정한 수명을 하늘에서 받아 그 수명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착인 수자상(壽者相)을 말한다. 사심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광대심(廣大心), 다 제도하여 열반에 들겠다는 제일심(第一心), 사실 제도받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는 상심(常心), 사상에 걸리지 않는 불경도심(不顛倒心)이다.(최대립 역해, 『금강경』(서울: 홍신문화사, 2002), 40-41쪽)

76) 夫 冥王者 如經所說 誓願不測 焰魔天子 諸位冥官 一十八 掌獄之臣 及 百萬牛頭之衆 鑑齋五道 善惡二符 記 罪福而分明 據 業緣而處斷賞善則 超生天界 罰惡則判落三途 辨 是非不枉之情 賜 苦樂無偏之報.(안진호, 앞의 책, 180쪽)

77) 棒叉若不橫交用 覺地猶難見一人.(위의 책, 183쪽); 명부(冥府)에서는 매질도 교육적 방편이 된다.

앞서 살폈던 죽음의 보편적 형상을 통한 동질성의 획득의 의미는 죽음은 누구나 당한다는 것이다. 『시왕경』은 죽은 이후에 죄 지은 자, 지은대로 죄를 갚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명부판리는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한다. 산 사람들의 질서가 명부의 세계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부인하면 선안, 업칭, 업경대를 들이민다. 그것은 지금 짓 지은 죄의 기록, 무게, 장면을 모두 거짓 없이 보여준다. 이렇듯 죽음을 보여줬으나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 보다 더 확실한 것은 명부와 시왕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예수재는 보이지 않던 존재를 보이도록 조형하고, 죽음에 대한 객관적 사유체계를 마련하여 죽은 자와 산 자를 동일하게 대하였다. 게다가 명부세계와 시왕과의 만남을 통해 현세와 육신의 삶에 대한 생각전환이 일어나게 하였다. 즉 죽음 이후의 세계와 만나게 하여 재자(齎者)의 자력 갱신을 유도한다.

Ⅲ. 예수재의 교육적 의미

1. 재현을 통한 죽음과의 만남

그동안 우리는 근대라는 사고와 시공간 속에서 제대로 죽음을 만나지 못했다.⁷⁸⁾ 그리고 ‘뿌리가 잘린 죽음’을 보고 자란 세대들은 죽음과 그 극복에 대한 오래된 전통을 알지 못한다.⁷⁹⁾ 일반적으로 일생에 단 한번 있을 죽음은 아무리 의미가 있다한들 피하고 싶은 충격적인 사건임은 틀림없다. 사실 부처님의 고민과 출가의 계기도 생로병사에서 출발하였고, 그것이 있었기에 깨달을 수 있었다.⁸⁰⁾ 자기를 제대로 보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면, 자기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죽음만한 주제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과의 만남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두려움은 태어나면서 괴로움과 함께 시작한다.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에 대해 불안해 하지만, 떼고 싶다고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아무리 옆 사람이 죽어나가도 정작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다.⁸¹⁾ 성인들의 죽음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죽음의 보편성은 인정하면서도 죽음에서 오는

78) 1993년에 병원에서 장례의식이 허가된 이후로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임종이 가까운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한다.(김명숙,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철학적 고찰」, 『유학연구』 제22집 (대전: 충남대학교 유학연구, 2010), 80-81쪽)

79) 구미래,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서울: 민속원, 2009), 140-141쪽, 한경구·박경림, 「한국인의 죽음과 공간에 대한 건축인류학적 고찰」, 『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경기: 집문당, 1998), 788쪽 재인용.

80) 김용표, 「불교에서 본 죽음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19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59-60쪽.

81) 정재걸, 『삶의 완성을 위한 죽음교육』(서울: 지식의날개, 2010), 11쪽.

불안감은 자기 자신의 죽음은 상상도, 이해도 못하게 한다”고 한다.⁸²⁾ 연구자들은 조사대상자들이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를 “죽음은 아직 나와는 거리가 멀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밝혀내었다.⁸³⁾ 결국 사람들은 죽음을 보편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꿀을 빨아먹으며 달콤함에 잠시 빠져 그 위기를 잊어버린다(안수정등(岸樹井藤))’는 이야기는 그러한 모습을 잘 나타낸다.⁸⁴⁾

죽음은 홀로 가야하는 길이자 과정이며, 때로는 단절과 무화로서 두려운 사건이다. 사람들은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음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거나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신을 죽음에 길들이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죽음을 가상 체험하는 이유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기회를 잘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임종체험의 경우에는 영정사진을 찍거나, 유서를 쓰고, 입관(入棺)을 해보는 등의 죽음과 만난 그 순간을 체험하는 것에 주목한다. 반면에 예수재는 죽음의 순간을 지나쳐 죽음 이후에 주목하게 한다. 죽어도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괴로움은 계속된다. 그것은 시왕의 심판과 각 지옥의 형량에 따른 처벌로 나타난다. 재자(齋者) 자신의 빛과 죄를 객관화, 수치화시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재자(齋者)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변화를 약속하지 않는다. ‘죽음의 의미화’, 곧 “죽음의 의미는 삶과의 관계 속에서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내적으로 체험되는 것”을 말한다.⁸⁵⁾ 예수재에서 다뤘던 비명횡사 등의 억울한 죽음은 정상적 죽음이 아니라 비정상적 죽음에 해당한다.⁸⁶⁾ 그러한 죽음을 통해 산 자와 죽은 자를 천도(薦度)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 예수재는 불보살과 신중을 초청한 자리에 산 사람과 죽은 자를 불러 모아 다함께 만나게 한다. 다시 말해, 두 부류 모두를 깨달은 자와 만나게 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에 있어 죽음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의미를 부여한다. 제대로 통과 하지 못했다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되겠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준비를 시키는 작업이 되기도 하겠다. 그러므로 예수재는 업력에 의해 습관이 고쳐지지 않은 재자(齋者)를 위한 교육적 의례이며, ‘죽음을 삶 한 가운데로 가져와 자기의 삶으로 만드는 의미의 행위’, 즉 ‘죽음의 의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⁸⁷⁾

요컨대 예수재는 반드시 죽을 본인의 참여로 이뤄진다.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 깨달은 자와 그러지 못한 자들의 만남의 무대를 마련한다. 이들을 만나게 해준 열쇠는 죽음

82) 김숙한정란, 「성인들의 죽음에 관한 인식, 죽음준비, 죽음불안」, 『인구교육』5집 (청주: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센터, 2012), 26쪽.

83) 위의 글, 33쪽.

84) 조계종포교원 편저, 『불교입문』(서울: 조계종출판사, 2000), 15-16쪽.

85) 김숙한정란, 앞의 글, 25쪽.

86) 이용범 엮음, 『죽음의례 죽음 한국사회』(서울: 모시는사람들, 2013), 45-47쪽.

87) 신승환, 「죽음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가톨릭철학』제20호 (경기: 한국가톨릭철학회, 2013), 222-223쪽.

또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다.

2. 충격 완화 장치의 마련

『티벳 사자의 서』에 따르면 죽은 후 7일간은 치카이 바르도[죽음의 여정 중 초입단계]에서 중유(中有)로 머물게 되는데, 이곳은 평화의 신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구원을 받지 못한 중유는 7일 이후에 초에니 바르도[죽음의 여정 중 중입 단계]로 넘어간다. 평화의 신을 알아보지 못한 중유를 위해 여기부터는 피를 마시며, 분노하는 신으로 등장한다.⁸⁸⁾ 그러나 중유는 이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의 모습에 놀라 또다시 도망간다. 앞서 평화의 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으니 분노의 신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예수재는 산 사람의 각성을 위해 죽음 이후의 세계와 만남을 주선하였다. 동시에 이로부터 발생할 충격을 예상하고, 대비한다. 이번 절은 죽음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살피도록 하자.

첫째로 죽음 이후에 주목하기 위해 죽음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한다. 재(齋)가 시작되면 종이로 만든 번에 이름과 생년을 적어 걸어둔다. 이것으로 죽은 자가 된다. 임종체험과 달리 죽음의 두려움, 불안을 느낄 사이도 없이 죽은 것이다. 다음 명부 시왕의 탕화, 번(幡) 등을 걸고, 소(疏)를 읽어 소환한다. 그 순간 명부가 눈앞에 펼쳐지고, 공포스런 시왕이 도착한다. 하지만 미리 도착한 증명단의 불보살이 있기에 시왕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명부의 업무에 시달린 그들의 노고(勞苦)를 치하(致賀)하고, 풀어드리기 위해 목욕을 시켜드린다. 음식을 대접하며, 부탁말씀을 드리고, 보내드린다. 공포스런 존재를 만나는데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이뤄진다. 게다가 죽음은 고통스럽기는커녕 죽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다음 장면으로 이어진다.

둘째, 예수재는 괴로움을 풀어낼 방법으로 빛을 갚을 것을 제안한다. 『수생경(壽生經)』에 따르면, 그 빛은 세상에 나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다. 이 생명은 곧 빛의 증거다. 빛으로 인해 인간은 사후에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나 그 빛을 지전납부와 경전읽기로 대체(代替)하여 당장에 갚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괴로움의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 달리말해 『수생경(壽生經)』과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은 시왕에게 바쳐지는 뇌물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데 시왕에게 과연 뇌물이 통할까?⁸⁹⁾ 성현의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도 중생인 시

88) 모습은 바뀌었지만 피를 마시는 것은 결국 생명에 대한 갈구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재의 일상과의 유사성 유지라는 맥락과 유사한 면이 있다.(류시화 옮김, 『티벳 사자의 서』(서울: 정신세계사, 2013), 317쪽)

89) 결국 이 장치는 방편일 뿐이다. 「염라대왕에게도 뇌물은 통하는가」라는 이야기는 그러한 점을 잘 드러낸다. 다시 말해 염라대왕이 아쉬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다.(심백강 편저, 『염라대왕에게도 뇌물이 통하는가?』(경기: 통진출판, 1994), 241-242쪽)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불보살의 화신이기에 명부에 온 죄인들을 증거로써 변화시키고, 죄값에 따라 처벌 하는 임무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충실하게 수행한다. 결국 그들의 일을 충실하게 하여, 불보살이 되길 바랄 것이다. 때로는 분노로, 매질로, 빛으로 나타내지만, 심판을 통해 회심(回心)의 기회를 주는 시왕은 치카이 바르도의 피를 마시는 분노의 신처럼 나타난다.⁹⁰⁾ 이는 더 나은 생(生)을 갈구하는 그들의 속뜻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명부의 시왕은 뇌물이 통하지 않는 철두철미한 심판관인 동시에 이를 통해 죄인을 변화시키는 불보살의 화신이다.

이는 ‘장자의 불난 집과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비유적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다.⁹¹⁾ 불난 집에서 아들이 놀고 있는 것을 아버지는 여러 방법을 찾다가, 결국 아들이 좋아하는 수레를 주겠다고 꾀여 아들을 그 안에서 나오게 한다. 불난 집에서 아들을 구해낸 아버지는 약속했던 수레를 아들에게 군말 없이 주는데, 이미 그 목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바람을 들어준다. 이는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불러 올 수 있기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들에게 ‘불타는 집과 함께 불타버린다면 얼마나 아플지’, ‘너를 부르기 위해 내가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를 일일이 아들에게 열거하고 설명하지 않는다.⁹²⁾ 오히려 위험한 불과는 전혀 상관없는 장난감으로 그들을 피어 끌어들인다. 장난감에 끌려온 아들은 한편 어리석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믿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즉 장난감을 믿듯이 아들은 아버지도 믿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의 존재로 아들을 본 것이다. 예수재 또한 이러한 방편으로 재자(齋者)들에게 죽음과 그 이후를 맛보게 한다. 예수재의 참 뜻은 자기 빛을 갉거나 죄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깨달음의 씨를 심도록 ‘인도(引導)’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⁹³⁾이다.

요컨대 예수재는 중생의 근기(根機)를 고려한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위해 장치를 마련한다. 다시 말해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는 인간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대면시키기 위하여 방편으로서 장치를 마련하였다. 예수재의 목적은 죽음을 통해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야 할 일을 위함이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라도 충격에 빠지게 해서 안 된다. 이것은 임종체험과는 다른 예수재만의 고유한 장치라 할 수 있다.

90) 김태훈은 죄인의 죄를 증명하여 반성시키는 것을 보아, 시왕을 사후세계의 조력자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김태훈, 「죽음관을 통해 본 시왕신앙-불교와 도교를 중심으로」, 『한국종교』33집 (익산: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9), 122쪽)

91) 이민수 역해, 앞의 책, 87-88쪽.

92) 중생은 여러 가지 욕심과 마음에 깊이 집착하기에 그 본성에 따라 여러 가지 인연·비유·언사·방편의 힘으로 법을 설한다. (위의 책, 55쪽, 91쪽)

93) 김현준·일타스님, 『광명진언 기도법』(서울: 효림, 2014), 32쪽.

3. 죽음에 대한 음미와 준비

앞서 예수재를 통해 죽음에 관한 불교의 교육적 장치를 살펴보았다. 죽음은 출가와 구도(求道)의 계기가 되었고, 예수재에서는 중생 구제의 근거이자, 교육의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⁹⁴⁾ 예수재에서 보았던 죽음이 지금, 이곳에는 어떠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을까. 그것을 이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의미라는 것은 관계에 의해 탄생하였지만, 이후에는 다시 그 관계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고, 결정짓는 최초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의미란 사회적 맥락에서만 작동하는 관계의 산물이다.⁹⁵⁾ 삶과 죽음도 의미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의미 있는 삶과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공통된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범주를 기반으로 논의해야 한다.⁹⁶⁾ 동일한 위치이자 의미로서 죽음은 분명히 그 범주 안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배제되고 있다.⁹⁷⁾ 그 범주와 그러한 관계 안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원시적인 두려움과 불안만이 그 이유는 아니다.

비정상적 죽음과 조우하지 않는 이상, 사람의 수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인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것이 요즈음의 죽음 풍경이다.⁹⁸⁾ 앞서 ‘뿌리가 잘린 죽음’이란 것도 주거환경의 변화, 죽음산업과 의료기술의 발달, 국가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본다면⁹⁹⁾,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비일상적이고 특수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¹⁰⁰⁾ 가령, 의료기술이 발달된 나라에서 일찍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준비하는 본인 또한 남아 있는 가족의 수고를 덜어 주고,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식이다. 즉, ‘선택과 배제’라는 근대의 교육이념에 충실하게 자신의 죽음준비를 사치로 여기거나 금기한다.¹⁰¹⁾ 나아가 죽음의 이미지를 패배와 소멸로 몰아세운다.¹⁰²⁾

죽음은 미래의 어느 한 시기에 도래하는 소멸이나 물질적 문명의 발달에 쓸모가 없어지는 패배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다. 죽음은 지금, 이곳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특정

94) 윤영호, 「웰다잉 문화형성을 위한 불교의 죽음관 연구」, 『철학연구』제130집 (대구: 대한철학회, 2014), 166쪽.

95) 의미란 진공 상태의 한 개인에게서 추출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물론 진공 속의 개인도 있을 수 없다. (김수정 옮김, 『죽어가는 자의 고독』(경기: 문학동네, 1998), 71쪽)

96) 신승환, 앞의 글, 210쪽.

97) 김소희, 「죽음교육의 교육철학적 의미」, 『종교교육학연구』제15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210-215쪽.

98) 김수정 옮김, 앞의 책, 16쪽, 35쪽, 63쪽.

99) 김상우, 「한국의 도시화에 따른 무속적 죽음관의 변화」, 『사회과학연구』제23집 3호 (부산: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305쪽.

100) 김열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서울: 궁리, 2001), 67-68쪽.

101) 김명숙, 앞의 글, 82-83쪽.

102) 김소희, 앞의 글, 205쪽, 208쪽, 211-212쪽.

한 사건이다. 그리고 인간은 타인의 죽음을 통해 본인의 죽음을 조우(遭遇)하고, 죽음에 의해 의미 있는 삶을 작동시키는 열쇠를 마련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죽음의 발견은 무의식적인 삶을 의식적으로, 세속적인 자기의식을 성스러운 자기의식으로 변화시킬 성찰의 계기와 공간을 마련한다. 결국 그것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한 본(本), 혹은 장치가 된다.

이에 예수재는 배제되었던 죽음을 이 자리에 끌고 와서 그것은 금기와 사치가 아님을, 패배와 소멸은 더더욱 아님을 밝히려고 한다. 예수재가 보여준 죽음을 통한 교육은 현세의 삶을 심판과 반성의 시간으로 만들었다. 죽음은 오히려 자기 죄를 챙겨보고, 빛을 갇는 등의 반성과 정리를 하게 하였고, 지금, 이곳을 수행 장소로, 학교로, 기회로 만들어 배움의 시공간을 만들어내었다.¹⁰³⁾ 정리와 배움이 가능한 것도, 회심의 시간이 마련되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회심은 스쿠루지가 보았던 자기 죽음의 발견, 그러한 순간과 맥락에서 태동하였다.¹⁰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삶을 바라는 마음 또한 죽음이 있기에 가능한 마음이다. 잊고 지냈던 죽음, 그 원형을 예수재는 반복적으로, 상징적으로 들추어냈다. 이러한 죽음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해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을 당할 것이 아니라 맞이해야 한다.¹⁰⁵⁾

예수재를 통해 자신의 삶과 죽음을 보았다면, 어떤 준비로 맞이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예수재는 죽음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까. 굳이 답한다면, 삶의 이 시기가 회심, 배움, 정리의 시간임을 알리고, 그리하여 인간으로서 마지막 성장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¹⁰⁶⁾ 결국 예수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재현하여,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103) 이종복 옮김, 「지광스님의 추천사」, 『달라이 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다』(서울: 북로드, 2004), 6-7쪽.

104) 익히 알려진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은 7년 전 죽은 동업자인 말리의 유령과 크리스마스이브에 나타난 세 정령이 스쿠루지를 회심시킨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때에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세 정령과 함께 다녀온다. 그 후 그에게 일어난 회심은 신의 기적이기보다는 교육에 의한 변화에 가깝다.(정재걸, 앞의 책, 122쪽)

105) 책의 제목이 죽음맞이인데,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위해서이다.(한국죽음학회웰다잉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죽음맞이』(서울: 모시는사람들, 2013)); 이 단체는 죽음을 가이드하기 위한 책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한국죽음학회,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서울: 대화출판사, 2010), 8-10쪽)

106) 내세가 있든 없든 간에 현세는 현세만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죽음은 현세를 현세답게 살게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죽음과 성장에 대한 논의로부터 참고할 수 있겠다.(위의 책, 48-49쪽)

IV. 결론

본고는 예수재가 재자(齋者)에게 미치는 교육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생전 의례인 예수재는 인간이 지금, 이곳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저 세상에서도 잘 살기 위한 불교의 교육방법이다. 예수재는 죽음 이후를 재현하고, 참여한 재자(齋者)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킨다. 미래의 가까운 시기에 우리에게 일어날 죽음을 미리 만나게 하여 이에 의한 깨달음, 혹은 회심(回心)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것은 곧 예수재가 가지는 인생의 교육적 디자인, 혹은 재현과 재창조이기도 하다.

2장에서는 예수재의 의식절차를 살폈다. 그것을 통해 구현한 죽음의 보편적 형상은 죽음 앞에 숨을 곳이 없음을 재자(齋者)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명부(冥府) 세계를 재현한 무대장치는 재자(齋者)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심판과 처벌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였다. 이렇듯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재현하여 체험하는 순간, 산 자들에게 깨달음을 일으킨다. 예수재의 교육적 장치는 그렇게 거기에서 발동한다. 3장에서는 예수재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 살폈다. 자기 죽음의 진정한 발견은 지금, 이곳의 삶을 변화시킨다. 예수재의 의식절차는 지금, 이곳의 삶에만 그쳐져 있는 인간의 유한적 시선에 무한한 확장을 부여한다.

기존의 교육은 교사가 학생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산출되어야 교육이 성공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정작 교육을 보면, 실패는 없고, 실패자들만 양산되었다. 교육의 이념과 실재가 따로 놓고 있으니 이념은 항상 성공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전통교육의 핵심적 관심사였던 심성형성의 방법 측면에서 의례를 재고한다면, 교육과 수업을 올바르게 수용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게 될 것이라 한다.¹⁰⁷⁾ 의례는 ‘언어를 거치지 않는 활동이며, 몸으로 익힌 것이 마음 형성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종류의 교육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의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이 전달되기 위한 필연적인 방법으로서 교육내용과 논리적 관련을 가져야 한다. 즉 지식은 그런 방식으로밖에 전달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의례를 수업방법의 하나로 제시한다.¹⁰⁸⁾ 말로는 때울 수 없는 가르침을 담아내고,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의례인 것이다. 그런데 예수재라는 것 자체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맞추는 교육방법이자 의례이고, 이런 방법이 주변의 의례 속에 숨어 있다면, 그래서 그 속에서 해법을 찾는다면 그것이 지금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것을 볼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교육이념과 실제의 연결 근거도 의례연구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연구자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오늘날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죽음교육이라

107) 최낙준, 『수업의 의례적 측면과 교사』(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08) 위의 글, 1-7쪽.

는 방법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말처럼 쉽게 죽음과 교육이 결합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의 방식대로 죽음을 가르치고 배울 수는 있는가? 죽어보지 않은 자가 하는 말이니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겪지 않으면, 사후체험담도 믿지 못하는 형국에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이 가르침은 결코 말로써 배울 수 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례연구는 연구자의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그 태도를 무너뜨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의례를 연구한다는 것은 의례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과 도구에 적응하기 위해 그 속에 들어가거나 직접 만져 본다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며, 자연스러운 변화의 시도이다. 가령 수영은 말로 배울 수 없고, 땅 위에서 배울 수도 없다. 물에 들어가 직접 행동으로써 배워야 한다. 게다가 땅 위에 있는 것처럼 힘을 주어진 아니 되고, 물에서는 물의 흐름에 맞게 힘을 빼야만 한다. 이처럼 그 연구가 본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식해야만 의례에 참여케 되고, 연구가 진행된다. 물론 의례연구는 개인과 환경의 일정부분을 맥락으로부터 이탈시켜 대상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 이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합이 우선하기에 연구는 참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가 없던 시대에도 교육은 있었다. 다시 말해 앎이라는 현상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 그리고 앎에 대한 반응도 있었다. 고대인들이 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의례적 행위를 통해 교육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믿음과 존재를 다시 재현하거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적 의례를 하였다. 오늘날의 예수재만 보더라도 거기에는 분명 지금의 학교 교육이 잇고 있거나 가지지 못한 교육적 힘이 있다. 이런 의례는 사회적 관계 등의 증표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자가 가진 앎에 관한 변화를 꾀하고, 각성을 시도한다.¹⁰⁹⁾ 이 연구는 이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러한 의례연구를 통해 그 힘을 담은 장치를 살피고, 잃어버렸던 힘을 지금, 여기에 다시 되찾자는 것이다.

109) 조창규, 「유가 관례의 문화해석」, 『대동한문학』제27집 (대구: 대동한문학회, 2007), 415-416쪽.

참고문헌

- 강재철. 「통과의례에 나타난 제습속의 상징성 고찰」. 『국문학논집』15집, 서울: 단국대학교, 1997.
- 공파스님 번역. 『극락세계1- 불설무량수경』. 서울: 불광출판사, 1997.
- 곽철환 편저. 『시공 불교사전』. 서울: (주)시공사, 2004.
- 구미래. 「망혼의 공간이동을 통해 본 불교 천도의례공간의 특성」. 한국종교민속연구회 편. 『종교와 의례공간』. 서울: 민속원, 2007.
- 구미래. 「사십구재의 의례기반과 지장신앙의 특성」. 『정토학연구』제15집, 서울: 한국정토학회, 2011.
- 구미래.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한 복 짓기』. 서울: 아름다운인연, 2014.
- 구미래.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 서울: 민속원, 2009.
- 국립문화재연구소. 『불교의례와 음식』.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2007.
- 국립문화재연구소. 『영산재』. 강원: 예맥출판사, 2003.
- 김두재 옮김. 「불설예수시왕생칠경」. 『시왕경』. 서울: 성문, 2006.
- 김명숙.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철학적 고찰」. 『유학연구』제22집, 대전: 충남대학교 유학연구, 2010.
- 김상우. 「한국의 도시화에 따른 무속적 죽음관의 변화」. 『사회과학연구』제23집 3호, 부산: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 김성민. 『불교의 죽음 준비교육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소희. 「죽음교육의 교육철학적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제15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 김수정 옮김. 『죽어가는 자의 고독』. 경기: 문학동네, 1998.
- 김수숙·한정란. 「성인들의 죽음에 관한 인식, 죽음준비, 죽음불안」. 『인구교육』5집, 청주: 한국교원대학교 인구교육센터, 2012.
- 김순미. 「불교의식에서 불찬류 시가의 기능」. 『동양한문학연구』제19집, 부산: 동양한문학회, 2004.
- 김열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서울: 궁리, 2001.
- 김용표. 「불교에서 본 죽음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19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 김태훈. 「죽음관을 통해 본 시왕신앙-불교와 도교를 중심으로」. 『한국종교』33집, 익산: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9.
- 김현선. 「〈감로탕〉 그림의 구조와 시대적 의미-고령산 보광사 〈감로탕(1898)〉를 예증삼아」. 한국종교민속연구회 편. 『종교와 그림』. 서울: 민속원, 2008.
- 김현준·일타스님. 『광명진언 기도법』. 서울: 효림, 2014.
- 담무참(역경위원회 역). 『대반열반경 1』(한글대장경). 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 2001.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포교연구실 엮음. 『생전예수재』.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4.
- 동국역경원 편. 『방광대장엄경 외』(한글대장경). 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 1978.

- 류성민 옮김. 『의례의 이해』. 경기: 한신대학교출판부. 2013.
- 류시화 옮김. 『티벳 사자의 서』. 서울: 정신세계사. 2013.
- 무 비. 『무비스님의 천수경』. 서울: 조계종출판사. 2005.
- 배진달. 『세상은 연꽃속에』. 서울: 프로네시스. 2006.
- 신승환. 「죽음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가톨릭철학』 제20호, 경기: 한국가톨릭철학회. 2013.
- 신춘열 옮김. 『업설 지장경』. 광주: 광복사. 2009.
- 심백강 편저. 『염라대왕에게도 뇌물이 통하는가?』. 경기: 통진출판. 1994.
- 세 친(역경위원회 역). 『아비달마구사론』. 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 1974.
- 안진호. 『석문의범』上. 서울: 법륜사. 1970.
- 우륜스님. 『영가천도』. 서울: 효림. 2013.
- 유마리·김승희. 『불교회화』. 서울: 솔출판사. 2004.
- 윤영호. 「웰다잉 문화형성을 위한 불교의 죽음관 연구」. 『철학연구』제130집, 대구: 대한철학회. 2014.
- 이민수 역해. 『법화경』. 서울: 홍신문화사. 2011.
- 이범수. 「불교의 예수재와 죽음 교육」. 『정도학연구』 제11집, 서울: 한국정도학회. 2008.
- 이용범 엮음. 『죽음의례 죽음 한국사회』.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3.
- 이종복 옮김. 『달라이 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다』. 서울: 북로드. 2004.
- 이진세. 『불교상례에 관한 연구: 생전예수재와 49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전경수 옮김. 『통과의례』. 서울: 을유문화사. 1992.
- 정명희. 「이동하는 불화: 조선 후기 불화의 의례적 기능」. 『미술사와 시각문화』10집, 서울: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1.
- 정재걸. 『삶의 완성을 위한 죽음교육』. 서울: 지식의날개. 2010.
- 조계종포교원 편저. 『불교입문』. 서울: 조계종출판사. 2000.
- 조창규. 「유가 관례의 문화해석」. 『대동한문학』 제27집, 대구: 대동한문학회. 2007.
- 천 친(역경위원회 역). 『십지경론 외』(한글대장경). 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 1997.
- 최낙준. 『수업의 의례적 측면과 교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대림 역해. 『금강경』. 서울: 홍신문화사. 2002.
- 최대호 역해. 『삼국유사』. 서울: 홍신문화사. 2008.
- 한경구·박경림. 『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경기: 집문당. 1998.
- 한국죽음학회.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서울: 대화출판사. 2010.
- 한국죽음학회웰다잉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죽음맞이』.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3.
- 한길로 역주. 『불설삼세인과경』. 서울: 불서출판 보련각. 1985.
- 허미경. 「천도제와 섯김굿에 관한 비교연구」. 『동양학연구』 제3집. 익산: 원광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 혜일명조. 「불교 의식 구조의 의미해석에 대한 재론」. 『공연문화연구』제24집, 제천: 한국공연문화학회. 2012.
- 혜일명조. 『예수재』. 서울: 에세이퍼블리싱. 2011.
- a. 『보정 생전예수재』. 서울: 에세이퍼블리싱. 2011.

홍태한. 「진관사 수록재 〈하단〉에 보이는 죽음 형상의 보편성」. 진관사수록재보존회 편.

『진관사 수록재의 민속적 의미』. 서울: 민속원. 2012.

2014 부산 팔관회 리플릿 참조.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번역 참조 사이트:

http://www.vajr.net/dharmadhatu/bang.php?table=study_nalanda&query=view&l=1438&p=1&go=9&from=search&WHERE=subject&keyword=%EC%98%88%EC%88%98%EC%9E%AC&category=#view_first(검색일, 2015.02.09.)

원고접수일: 2015년 1월 19일 심사일: 2015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12일

연구자소개: 강민석

- ① 전공: 교육학(교육사) / 소속: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② 관심영역: 전통교육, 종교교육
 - ③ 주요논저: 「성호 이익의 실용 교육사상 연구」, 「신화의 인간관과 교육의 재탄생」
 - ④ E-mail: ouotti76@pusan.ac.kr
-

Abstract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Ye-su-jae

Kang, Min-seok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escape from anguish of death, Buddhism provides a ceremony, called Cheon-do-jae. As one of Cheon-do-jae ceremony, Ye-su-jae is a preparation ceremony for death by accumulating merit for next life. It represents the world after death in order to teach death and afterlife to the living beings. It allows a person to experience the death in advance. As it contains the stories relating the enlightenment or satisfaction, Ye-su-jae can be identified as educational ceremony. This study analyzes the fundamentals of Ye-su-jae's ceremonial procedure and the arising during the process. It explore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Ye-su-jae represented by judgement and punishment, then the ways to foretell the death and its significance.

After all, people, who have transformed through the experience of death, practically participated to Ye-su-jae and experienced the death through difference senses(sight, hearing, touch). In other words, a ceremony is a place and a tool to learn how to live better with structured expressions of gestures. This is Ye-su-jae's educational design for life or the power of representation and recreation.

Key words: Buddhism, Ye-su-jae, death, education